

變化하는 建築的對象 - 變化하는 建築家の 職能

趙 英 武

本稿는 韓國建築家協會 78年度 建築討論 意見論文임을 밝힌다.

建築的對象은 人間の 自然的性質을 核으로하여 그 주위에서 變化하는 것이다. 항상 進化하고 變化하는 狀況속에서 建築樣式을 變化시키는 建築的 對象들을 把握하여 解決하여야 할 것이다. 어떻게 建築的對象들을 把握 하여야 하는가, 그 把握方法들이 어떻게 變化하고 있는가? 장차 建築家の 職能은 어떻게 變化하는가를 논하고자 한다.

1. 建築은 人間の이고 時間的인 藝術

建築은 人間과 그 生活 그 自体를 空間形式으로 造形한다. 장차 계속 해명되어질 온갖 人間の 自然的 性質들에 따라서 또 항상 力動的인 環境의 進化와 變化에 따라서 建築은 變化하도록 運命지어진 實用藝術이다. 建築藝術은 항상 人間이 그의 人生에 의하여 現在의 生活要素들을 造形하는 것을 對象으로 하므로 時間空間藝術인 것이다. 歷史적으로 建築藝術이 人間の 自然을 本源으로 하는 것은 不變이지만 이 自然的 本源을 認識하는 概念과 方法에 의하여 變化하여왔다. 오늘날 과거의 참다운 建築藝術基盤이 素朴한 아름다운 民俗建築속에 강하게 土着되어있고 또 自然的이라고 評價하는 것이 바로 이런 見解이다.

따라서 建築的對象은 이렇게 進化하고 變化하는 空間構造의 造形 形式과 그 속에서 수행되도록 預想된 또는 期待한 成果가 目標인 것이다. 이런 造形形式과 그 成果는 建築主人公에 의하여 人爲적으로 創造되는 것이기 때문에 文化的批判의 目標이 되기도 한다.

現在와 같이 都市化, 都市計劃 및 建築的對象 세 가지 次元들에 관한 批判이 어려운 時代일수록 더한층 建築하는 活動이 解決하여야 할 問題들이 무엇인가, 그것들을 어떻게 解決하여야 할 것인가를 把握하여야 할 것이다.

2. 建築을 變化시키는 根源들

人間이 建築한다는 것은 바로 人間の 要求들을 充足시키기 위한 것 또는 그 充足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는 見解는 真理일 것이다. 이 人間の要求들은 매우 다양한 性質들을 표현한다. 크게 分類하면 生物인 人間の 生理的 要求들, 思考하는 存在인 人間の 心理的 要求들, 社會的存在인 人間の 社會的 要求들, 그리고 經濟動物인 人間の 經濟的 要求들이 存在한다.

현재 이런 人間の要求들이 과연 科學的知識의 表現으로서 定義되어 지느냐가 疑問이다. 그런가하면 현재 파악된 어떤 要求들조차 그 充足水準이 經濟的條件들에 의거하여 적당히 國家들마다 달라지고 또 그 充足形式이. 經濟的條件들과 더불어 慣習들에 의거하여 時代마다 달라지는 것도 事實이다.

이런 人間の要求들 가운데는 絶對的인 것 또는 確定的인 것이 있고 또 相對的인 것 또는 未確定的인 것이 있다. 相對的인 것 또는 特定人的 特殊한 것은 달라지게 마련이다. 여기에서 問題가 되는 것은 人間の 充足反應과 建物의 性能들 간의 一致問題이다. 建物は 50年以上 壽命期間을 豫想하여 製作하므로 처음 使用할 무렵에는 新式이던 것이 세월이 흐르면 점점 流行에 뒤떨어진다. 어떻게 미리 이런 것을 豫測하여 다시 改造할 수 있게 하느냐가 問題된다. 이것이 適合性의 問題 또는 可變性의 問題이다. 이것이 適合性의 問題 또는 可變性의 問題이다. 可變性은 可變社會의 어떠한 用途라도 처리할 수 있는 變更可能性을 의미한다.

여기에 추가하여 새로이 共同社會次元의 要求들을 充足시키는 것도 필요하다. 建物は 보통 建築地區속에 集團의 으로 건설된다.

이 建物內에서의 人間の 正常的인 生活과 建物自体의 正常的인 使用이 公害를 發生시킨다. 個人과 共同社會間에는 어떤 規制가 필요해진다. 共同社會構成員들은 서로 親密感과 信賴感을 가지고 社會的交換을 促進시키는 어떤 性格의 倫理的協約을 무시할 수 없게 된다.

이상의 것들이 建築의 人間の인 進化 또는 變化의 根源들이 되는 것이다. 그 밖의 建築의 時間的인 進化 또는 變化의 根源들은 무엇일까?

建築은 우리 時代의 環境의 變革으로부터 영향을 받게 된다. 우리 時代의 環境은 完全히 우리의 統制를 벗어난 集團心理의 變化, 生物的條件들의 變化, 技術들의 變化를 出現 시키고 있다.

이런 環境의 變革狀況속에서 都市民들의 要求들과 事業主들의 要求들을 充足시켜 個人生活과 充實한 社會生活을 解決하는 可能性들을 期待하고 出産시키는 建築 및 都市計劃의 技法들을 發見할 수 있는가 問題된다.

여기에는 예를 들면 별로 변화하지 않는 地理的 및 氣候的의 與件들, 점진적으로 變化하는 地域資源들, 慣習들, 習性들, 信仰들, 家族構成 등, 그리고 變化가 빠른 家族經濟, 就業活動들, 流行들이 存在할 것이다.

그런데 과연 建築樣式에 있어서는 무엇이 變化의 根源들이 되는가? 여기에서는 앞서 열거한 것들과 獨立的으로 開發되는 構造技術인 建築工學과 建築藝術이 存在하는 것이다. 建築研究分野에 있어서는 人間的이고 時間的인 建築的對象들을 構成하는 空間의 造形技法들, 다시 말하면 形態들, 美, 彫刻的造形은 本質的으로 建築家의 領域과 建築工學家의 領域이 兩者에 의하여 그 變化가 促進된다.

建築工學은 1960年代에 組立化와 工業化의 研究 및 應用體系를 開發하였다. 그러나 建築藝術은 아직도 人間的이고 時間的인 空間을 体系的으로 設計하는 理論들과 方法들의 研究를 進行中에 있다.

3. 建築的 把握方法들의 變化過程

1920年代의 유럽 近代建築初期는 처음부터 全面的으로 過去의 모든 藝術樣式들의 紐帶를 拒否하면서 獨自的인 近代의 建築理論들과 方法들을 開發하였다. 그것은 유럽 國家들의 社會的 및 技術的인 發展이 必然的으로 招來한 結果이었다.

近代建築의 合理主義가 싹트기 시작하였던 때는 대강 19世紀末부터였다. 이런 새로운 것들은 온전한 折衷主義 傾向으로 유도한 것이 1910年쯤에 出現하였던 新古典主義建築이었다.

近代建築第1期(1919~1929)의 發端이 되었던 이 모든 先驅的인 것들은 世界第1次大戰이 터지자 그 發展이 中斷되었다가, 戰後에 생겨난 완전히 달라진 社會的 및 文化的環境과 直面하여야 했다. 戰爭때문에 그 基盤마저 완전히 잃어버린 社會와의 妥協이란 상상할 수조차 없었다. 이처럼 急進的인 樣相들이 정착하기 시작하였다. 建築設計方向이 變革되기 시작하였고 심지어 유포피아적인 스케치들까지 派生시켰다. 그러나 建築은 具體的인 것으로 接近할수록 形態的, 工學技術的인 面에 의하여 特徵지어졌다. 그리하여 점차 形態들과 材料들의 規格化 또는 共通化가 形成되어졌다. 1928年 國際近代建築會議(CIAM)가 創設되었고, 이것이 이른바 國際樣式建築運動의 母體이며 또 平行六面體를 建築樣式의 象徴으로 삼았다.

1930년에 다시 變化가 나타났다. 이 變化들은 近代의 本質的인 方法들과 關係되었고 또 美學的問題들을 發展시켰다. 이 變化들은 空間, 形態, 材料, 建築樣式 간의 關係들과 外界環境속에 建物들을 一致시키는 調和를 다루었다. 1920年代의 建築樣式的 潮流를 國際樣式이라고 정의한다면, 1930年代에는 類型的인 地域主義傾向을 지닌 明白한 分化의 特徵을 가지고 있다. 近代建築 第2期

(1930~1939)에는 近代建築이 독일, 俄國, 프랑스에서부터 점차 中歐유럽 國家들과 美洲국가들에게까지 널리 普及되므로 말미암아 이런 傾向이 形成되었다. 氣候的, 地理的 및 傳統主義的條件들이 近代建築의 地域主義的 分化를 촉진시켰다. 심한 것은 國家主義란 극단적인 方向으로까지 치달기도 하였다.

世界2次大戰이 끝난 다음 유럽 國家들은 戰災復舊와 數百萬의 避難民들에게 住宅을 마련하여 주는 것이 큰 問題였다 실제로 近代建築第3期(1949~1958)에 볼 수 있는 潮流는 1930年代에 나타난 傾向의 延長에 지나지 않았으나, 이것은 대단히 독특한 差異를 가지고 있다. 1930年代 새로운 近代的形態는 몇가지 限定된 部分에만 制限되어 있었으나, 다시 말하면 地域主義的傳統의 融合, 新式建物들과 自然環境 간의 關係들에 제약되어 있었으나, 그때는 이와 달리 새로운 形式的表現은 total한 것이 되었다는 것이다.

새로운 形式的表現은 形式化되어버린 傳統이나 基準에 대하여 아무런 制約을 인정 하지 않고 用途와 使用材料들에 가장 適合한 特殊하고 total한 形態들을 追求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또 1920年전후의 近代建築이 이른바 古典主義와 分離하여 拒否鬪爭하였다는 事實을 생각한다면 아주 흥미있는 現象이라고 아니할 수 없는데, 모든 온갖 可能性들이 다 고갈되어 버린 다음에 表現手段들의 普及이 形態들의 새로운 折衷主義方向을 發展시켰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近代建築第3期는 새로운 折衷主義와 技術的 完璧傾向에 의하여 特徵지어진다. 1958年 드디어 國際近代建築會議가 10人組(team-10)에 의하여 解散당하였다.

1958年경 몇 건축가들로부터 엿볼 수 있는 變化가 공공연히 나타났다. 그때까지 近代建築原理들을 全面的으로 실행하였던 建築家들이 이 近代建築을 支配하던 몇 가지 原理들과 方法들에 대하여 凝心하기 시작하였고 또 새로운 建築概念들을 開拓해나가기 시작하였다. 1958年경만 해도 建築潮流들이 단순하였기 때문에 쉽게 觀察할 수 있었던 事件들이 갑자기 多樣하게 變化하였고 여러 系譜들로 갈라졌다. 이때부터 現代建築時代가 登場하기 시작하였다. 이때까지 近代建築의 代表的建築家들과 같이 일하던 建築家들마저도 建築作品傾向을 變化시켰다.

本質的으로 現代建築傾向은 brutalism과 formalism이라고 부르는 傾向들에 의하여 分類된다.

Brutalism은 두가지 종류들로 区分되는데, British brutalism은 大量生産社會에 順응하고 있는 本質的으로 論理的이고 非美學的인데 비하여 International brutalism의 本質的인 目標은 美學的의 秩序인 것이 特色이다. 이 새로운 brutalism傾向은 技術的完璧傾向의 完璧함과 正確함을 追求하지 않는 대신에 생긴 그대로의 材料들의 面質들과 根源性들을 追求하는 것이다.

Formalism은 주로 美国建築家들이 追求하였는데, 機能과 形態의 關係에 있어서 形式的인 形態追求에 보다 더比重을 두고 있는 傾向이다. 이 傾向은 1950年代以後에 美国에서 試圖되었던 新古典主義, 技巧主義로 치달는 미묘한 징조들을 들어내기도 한다.

西洋近代建築運動은 本質적으로 유럽 建築의 傳統이었던 古典主義들로부터 分離하여 對決하는 試圖이었음에 反하여 西洋現代建築運動은 바로 전시대의 전통인 近代建築의 進化發展의 傾向, 어느 경우에는 近代建築과의 內在的인 鬭爭이라고 評價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時事的인 것에 직면할수록 現代建築傾向들을 把握하기가 어려워진다. 建築學의 研究와 應用의 体系가 아직 完全한 解決을 보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世界的인 建築團體인 國際建築家聯盟(UIA)과 世界建築研究會議(CIB)도 그 시급한 當面課題가 設計方法體系를 研究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1958年 CIAM解散宣言을 주도하였던 Team-10에 關하여 英國建築家 Alison Smithson夫人은 「Team-10을 結成한 것은 全적으로 CIAM을 계승한 建築思想process가 적절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 建築家가 수행할 責任간에는 어떠한 抽象的인 master-plan이 介在하지 않고 있다. 거기에는 人間的인 事實과 그 狀況을 유지하는 問題들밖에 없을 것이다…… 建築은 살아있는 것이며, 自然的으로 成長하여 結合하며, 그 全体로서, 人間이 자기의 希望을 실현할수 있는 空間을 創造하는 것이 될 것이다. 이러한 方法이 아니고서는 變革하는 建築grouping의 出現을 바랄 수 없다는 것이 Team-10의 主張이다(Team 10-Prima, 1970版)」고 설명하고 있다.

프랑스의 評論家 Michel Ragon은 「Chandigarh와 Bragilia는 이제 紀念的인 都市들이 되어버렸다. ……21世紀都市들은 좀더 永久的인 改革으로서 建築世界의 可變性들을 가능케하는 適應性들(flexibilités)을 가진 構造의 도움을 빌려서 이러한 紀念的都市인 建設을 피하여야 한다 …… Le Corbusier, Walter Gropius, Mies van der Rohe의 새로운 建築時代는 未來의 始作이라기보다는 오히려 過去의 終末을 表現하였다고 보는 젊은 建築家들은 人間의 groupings과 時間, 可能性, 可變性, 空間性 등 새로운 概念들과 一致하는 都市建築들을 提案하고 있다(Cité-Yan 2000, 1968版)」고 予見建築研究그룹(GEAM)을 대변하였다.

프랑스工學家 Gérard Blachere는 「CIAM의 아테네憲章은 人間을 위한 都市를 建設한다는 趣旨의 宣言, 이와 비슷한 宣言으로 밖에 생각되지 않음을 강조한다. 그 成就目標, 즉 充足시켜야 할 要求들을 상세히 明示하지 않는 한, 엄밀하게 科學的精神으로 進歩的인 解決策들을 正常化시키지 못하는 한 별로 쓸모가 없다고 여겨진다고 付言하여야겠다(Savoir-Batir, 1966版)」고 批判하고 있다.

近代建築에 대하여서뿐 아니라, 1958年以後의 現代建

築傾向들 즉 brutalism, formalism, utopianism에 관한 批判도 생겨나고 있다.

독일建築家 Jürgen Joedicke는 「brutalism과 formalism의 경우, 建築家は 一面 研究와 實踐간의 斷切, 또 一面 技術的 및 社會的變革에 주의하여야 한다. 具體的設計의 觀點에서, brutalism은 最大供給을 目的으로 手段으로서는 時代錯誤的인 것이다……. formalism은 藝術, 즉 藝術至上主義의 復活을 유도하였고, 그 目標는 19世紀末의 概念들의 意味로서 아름다운 藝術作品들을 創造하는 것이었다. ……utopianism傾向의 提案들은 이런 未來의 見解들이 現實的인 것 대신에 어떤 象徵的인 原型들을 表現하였기 때문에 失敗하였다……(Tendances de l'architecture moderne, 1969版)」고 지적하고 있다.

이렇게 西洋建築이 새로운 決定的인 理論과 方法의 研究를 進行시키고 있는 똑같은 時期에 韓國建築은 어떻게 무엇을 發見하였을까? 그동안 우리는 傳統建築樣式을 形式的으로 移植하였다. 그러나 現在 韓國固有의 地域主義 建設의 理論과 方法은 그 윤곽을 들어낸 것이 무엇이냐고 主張할 수 있을까?

4. 變化하는 建築家의 職能

社會的 및 技術的 變化

1970年 人口500萬抑制政策이 失敗한 서울은 1978年現在 人口 780萬人에 도달하였다. 이렇게 人口가 增加하는 都市建設을 우리는 想像조차 못하였다. 장차 이것이 어느 만큼 더 增加할 것인지도 疑問이다. 여기에서 생겨날 生活樣相들이 어떻게 될지 予測할 길조차 없다. 서울의 旧都市內에는 이제 自動車들을 주차시킬 空地조차 없고, 上水供給과 汚物處理가 곤란해졌고, 마음껏 居住할 수 없는 拘束들이 증가하고 있다. 자동차들을 위한 道路와 駐車場의 開發은 既存建築施設들을 撤去하지 않을 수 없고, 자꾸 道路用地들을 擴張시켜야 한다.

자꾸만 기존건축시설들을 철거하다보니까 어느덧 旧都市의 모습은 겨우 과거의 幻影들밖에 안남기게 되었다.

서울의 人口增加는 向都性和 就業構造의 修正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人口增加는 所得向上과 더불어 더 많은 建築面積들을 필요로 하고, 都市의 擴張은 通勤時間과 滯路時間과 增加를 초래하였다. 空氣의 汚染과 水質의 汚染은 人間의 健康을 害할 정도가 되었다. 土地需要는 地價上昇과 垜地面積零細化를 초래하고, 드디어 傳統的인 獨立住宅建築의 포기를 초래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基本的인 計劃設計의 發想들이 社會的側面뿐 아니라 技術的側面에서 몇 10年前과 별로 다름없이 處理되고 있다. 우리는 이런 變革들과 對決할 수 있는 技法들, 즉 交通과 道路網, 供給處理, 法律, 住居 建築技術의 技法들을 解決하여야 할 것이다. 空間創造의 劇的인 成果들은 오늘날 대단히 發展된 情報들 없이는 不

可能하게 되었다. 工業的이고 機能的인 建築技術이 1920 年代의 近代建築을 조건지었던 것처럼, 오늘날에는 情報들이 決定的으로 20世紀末의 建築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建築家の地位

예상되는 發展들과 解決할 問題들의 빠른 變化에 비추어 建築家들의 活動은 束手無策이라는 것을 들어내고 있을지 모른다. 우리는 아직 좋은 建築과 都市計劃을 實踐하여 본 歷史的經驗들이 거의 없으며, 1920年以後에도 本格的으로 變革狀況들과 直接 對決하여온 獨創的인 技法들을 가지지 못하고 있다.

建築家は 一般的으로 建築研究는 이것이 直觀的인 創造의 可能性을 除去하여 버린다는 구실아래 거의 排斥당하고 있다. 그러나 合理主義와 想像力은 兩者가 矛盾된 것들이 아니라 오히려 人間을 위하여 相互補完的인 可能性들인 것이다.

充分한 情報들 없이는 想像力은 幻想的인 것이 되어버릴 危險이 많다. 近代建築에서는 概念과 創造가 항상 合理主義의 커다란 木을 지속하였음을 立証하고 있다. 이런 事實에 비추어 建築領域에서는 科學的方法을 導入하는 것이 문제된다. 이 科學的方法들 가운데 예를 들면 体系的인 設計方法들, 計量的研究들, 建築技術들, 그리고 建築理論들을 열거할 수 있다.

실제로 建築家에 관한 現概念은 最終決定들을 혼자서 최종적으로 判斷하였던 19世紀末에 나타난 建築家- 藝術家의 概念에 근거하고 있다. 그러나 不斷히 증가하는 情報의 量들과 解決할 問題들의 複雜性的의 增加는 個人이 把握하여 處理할 수 있는 限界를 넘어서고 있다.

建築家가 현재의 研究들과 實踐方法들을 가지고서 오늘날의 建築需要問題들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를 反省하여야 한다. 물론 소규모의 建築空間들을 傳統的인 方法들에 의하여 處理되어질 것이다. 그러나 일찍이 경험하지 못한 복잡한 문제들이 문제되어버리면 不充分的인 것이 되어 버릴 것이다. 이런 疑問에 대한 解答이 어떤 職業人에 의하여 내려져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建築家와 都市計劃家가 무엇을 해냈었던가에 상관없이 아직도 建築家는 현재 綜合(integration)의 精神과 能力을 가진 非凡한 職業人들중의 한 사람이다.

최근의 研究로 말미암아 태어난 建築技術의 產物이 組立化와 工業化의 形態이다. 要求들을 완전히 把握하는 行為가 필연적으로 이 要求들에 적합한 形態를 초래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다. 造形形態들이 문제되면, 즉각적으로 美學的考慮들을 紹介시켜야 한다. 그리고 현재로서는 이것이 장차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를 假定한다는 아무런 구실도 存在하지 않는다. 이것은 歷史的으로 變化할 적에는 항상 그러한 것이다. 이런 變革때문에 완성된 研究와 構造製作過程의 여러 段階들의 試驗과 批判을 지

배하는 基準들은 항상 美學的次元의 最小 要求들과 관련지어진다.

이런 責任遂行은 建築家가 職業構造들을 修正하는데 歸着할 것이다. 새로운 責任遂行에 필요한 職業精神과 職業構造의 變化가 이루어져야만, 장차 建築家는 社會에 대한 그 自身의 役割을 다하는 地位를 가질 수 있게 될 것이다.

새로운 條件들

우선 作家는 그의 主觀的인概念에만 의거하여 永遠한 進化的狀態인 社會的인 技術的인 環境과 관련되는 새로운 對象空間의 可能性들을 간직하는 提案들을 創造하고 있는지 反省하여야 할 것이다.

이런 試圖들속에는 그 背景으로서 建築進化의 原理, 즉 새로운 形式으로 나타날 새로운 用途에 對應하는데 필요한 適應性(flexibilité), 予定된 用途속에서 修正이 가능한 適應性이란 共同分母가 存在하고 있다. 要求들은 環境의 變化에 맞추고 變化할 것이다. 새로운 또 修正된 用途들에 대한 可變을 가능케하는 適應性과 建物部材들의 一部 또는 全部의 修正과 交替를 가능케 하는 變異性(variation)이 문제된다.

이런 종류의 해결들은 아직 해결의 여지가 많이 남아있는 建築經濟가 문제된다. 建築經濟는 建設 및 管理費用(價格)이외에 이 價格들과 建物의 價值, 效果, 建設 및 居住의 조건들이 快適, 壽命期間과 관계된다. 適應性과 變異性的의 가능성은 確定的인 것보다 더 많은 費用이 소요되는 것이다.

傳統的인 建築概念을 變化시키는 이런 例들이 최근의 事務所 및 學校建物들에서 나타나고 있다. 適應性은 실제로 現在 잘 알려져 있지 않은 將來의 進化 또는 變革에 순응하는 機能들과 內容들을 고려하는 것이다. 장차 事務所의 業務對象들과 教育對象들은 現在보다 더 달라질 것은 뻔하다.

장차 工業化는 建築家에 의한 研究方法들의 완전한 轉換을 조건 지을 것이다. 工業化는 機能的 및 經濟的인 利點들을 가지고 있을뿐아니라 역시 무시할 수 없는 社會的인 樣相들을 들어내고 있기 때문이다. 젊은 勞動者들이 就業條件들이 安定되어 있는 工場들로 몰리고 있는 狀況이 장차 建設人력을 確保하는 手段으로서도 工業化 建築方法들의 發展을 초래할 것이다. 불과 10年以内に 人口 280萬人이 증가하는 狀況에 비추어, 그 建築需要는 手工的인 方法대신에 機械化된 工業化方法에 의하여 交替되어야만 供給이 可能할 것이라는 점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建築分野에 있어서는 手段들과 目標들이 대단히 밀접한 關係를 가진다. 또 하나의 理由는 工場에서 完成하는 生産品들의 最終마감 方法들이다.

완전한 工業化以前에 主要構造研究와 더불어 附帶構造物研究가 마무리되어야 하고 이에 관한 모든 詳細資料를 決定할 필요가 있다. 研究調整을 위하여 동원하는 專門家들의 數가 현저하게 增加한다는 것을 주의하여야 한다. 이것은 協同作業의 體制가 필요한 만큼 建築家가 그의 設計案들을 明快하게 表現할 수 있느냐가 문제된다.

장차 建物들의 形態들과 表現들이 어떤 것이 되어 버릴 것인가 고려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이 문제에 대한 解答은 進化하는 時代속에서 그들의 見解들, 方法들, 手段들을 表現하는 建築家들의 能力과 適応可能性에 의하여 달라질 것이며 또 傳統樣式들과 다른 새로운 樣式을 創造하지 말라는 것도 없을 것이다.

최근 人工的으로 環境條件들을 創造하는 巨大한 建築構造들의 技術的提案들이 많이 나왔다. 아직 이런 提案들은 空想的인 것에 지나지 않을지 모른다. 오히려 현재 惡化되어 가고 있는 環境條件들을 定義하여 가장 現實主義的인 解決策들을 發見하여야 할 것이다. 현재 우리에게 不足한 것은 市民들의 意識에 비하여 現實的이고 理想的인 設計提案들이 不足하다는 事實이다. 이런 自覺的인 提案들이 없는 한 政治人들이나 執權者들은 필요한 財政的 및 法律的手段들을 發動시키기 위한 壓力을 느끼지 못할 것이다. 이 問題에 있어서 運命을 거는 것은 人間生存의 基本原理들을 保護한다는 것 이외에 더 다른 것이 있지 않다. 大氣汚染, 自然의 破壞, 그리고 不吉한 都市繁殖은 우리가 解決할 問題들이다.

1960年代에는 適応性의 概念이 都市計劃研究의 고려사항들 속에 導入되기 시작하였다. 어느 建築研究보다 더 長遠한 都市計劃家는 그 事業執行이 소요되는 長期性을 고려하여야 했다. 長期計劃은 원래 그 自体속의 修正이 불가피한 것이다. 현재 決定的인 理由처럼 인정되고, 유효한 최선의 것처럼 고려되는 모든 것들이 장차 修正主題들이 되어버릴지 모른다. 과거의 建築計劃일 경우에는, 建築家의 相談者로서 建築主가 存在하였지만, 都市計劃의 一部單位가 되는 大量住宅建設의 경우에는, 將來 利用者들이 存在하지 않기 때문에 質問相對者가 存在하지 않는다는 어려움이 여기에 追加된다. 一般的으로 既存住居條件들의 分析밖에는 神經을 쓰지않는 資料들은 將來 利用可能性들을 위한 予測을 결여하고 있다. 例를 들면 江南地域의 中型以上の 아파트空間構造들이 부엌 및 食母房을 中心으로 한 食母家事空間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것이 장차 어떤 主婦像 또는 家族像을 出産시킬 것인지 凝問스러워진다는 것이다. 流行的이고 經驗的인 原理들과 直觀的인 予測들이 要求들의 變化를 充足시키는데 不充分하다는 것을 發見해내야 한다.

1933年 아데네 憲章은 都市計劃領域의 機能들에 대한 分離原則을 宣言하였다. 住居, 勞動, 餘暇 그리고 交通에 대한 機能들을 分離하였고 또 住居地區들, 就業地區들, 餘暇地區들이 地理的으로 分離된 地區들속에 分散配置하는 것이었다. 이런 機能들의 分離는 19世紀의 유럽 都市들의 錯誤들에 대한 反作用이었다.

이런 分離原理에 근거하여 建設된 住居都市들이 否定的인 成果들 밖에 거두지 못한 탓으로, 2次大戰以後의 新都市들은 아데네 憲章과 相反되는 都市計劃原理의 要求를 許容하게 되었던 것이다.

또 다른 유럽 都市計劃에서의 變化는 都心地區整備에서 나타났다. 都心地區들은 官庁所在地와 같은 業務機能들 밖에 存在하지 않을수록 退勤時間後에는 아무런 生活와 活動들이 없어진다. 先見之明이 있는 都市計劃家들은 좀더 分別있는 方式으로 都心地區들을 利用하기 위하여 아직도 나무랄데 없는 都心地區들을 保存하고 있다. 이 都市地區들이 都市의 利害關係가 높은 繁榮의 中心 地區로 回復되어 지도록 이 都心속에 다시 끌어들이 産業活動들의 內容과 可能性들을 檢討하고 있다.

가장 큰 關心은 바로 과거처럼 都市生活의 繁榮空間이 되는 街路의 復權이다. 街路는 技術的으로 交通軸에서 벗어나 步行者의 領域을 確保하게 된다. 그 街路沿邊에는 百貨店들, 市場들, 食堂들, 寺院들, 會合場들, 劇場들, 映画館들, 社會福祉施設들, 官庁들, 民間會社들의 機能들이 配置되어 共存하는 것이다. 太平路의 樣相이 밤에는 일종의 高速道路가 되어야 할 것인가?

5. 結 論

急進的으로 變革하는 서울속에는 建築家의 職業能力들을 變化시키는 수많은 建築的對象들이 存在하고 있다. 과거와 같은 좁은 眼目으로서는 解決할 수 없는 많은 問題들이 人間的인 文化生活들을 可能케 할 수 있도록 解決되어야 한다. 1970年代의 建築家들은 急進的인 狀況속에서 變化하는 建築的對象들을 人間的인 建築空間으로 創造하여야 하는 意志와 職業能力들을 가져야 한다.

建築對象들의 創造에 있어서 予定된 目標처럼 藝術을 強調한다는 것은 建築을 科學처럼 宣言하는 것과 같은 時代錯誤的인 것이다.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은 科學的方法을 導入하여 建築的對象들과 根源들을 定義하여 体系的으로 解決하는 實踐方法들을 發見하는 것이다. (1978. 11. 12~26)